

태풍 '미탁' 피해액 100억 잠정 집계

김 채묘시설 집중 전체 95% 차지 인명피해는 없어 도, '링링' 복구 국고 440억 확보...신속 피해 조사

전남도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전남·진도·신안 등 11개 시·군에서 사유 및 공공시설 총 100여억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고 7일 밝혔다.

시·군별로는 해남 62억4,400만원, 진도 35억7,900만원, 신안 1억1,200만원 등이다. 특히 김 채묘시설 피해가 95억500만원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다. 완도 등 주택 84동 중 침수가 83동, 반파 1동으로 이재민 1세대 2명(보성)이 발생했다. 영암 등 전 시·군에서 벼 침·관수, 쓰러짐 2,759ha, 해남에서 배추작물 침수 2,300ha의 피해가 발생하는 등 연이은 태풍으로 농어가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도로 21개소, 하천 3개소, 저수지 1개소 등 공공시설 29곳이 파손돼 3억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이 가운데 공공시설 29개소는 모두 복구 완료했다. 사유시설의 경우 침수주택은 배수 후 가재도구 정리·방역 실시 후 귀가조치를 하고, 피해 발생지역에 대한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한 수시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벼 쓰러짐 피해 및 낙과 피해지역은 병

속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농약 대 추가 지원과 벼 흑·백수, 수발아 피해 특성을 감안해 피해 조사기간 연장(7일)을 지난 4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행안부가 긍정적이어서 조만간 연장 통보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연이은 3개 태풍 영향으로 지역 내 벼 도복 및 과수 낙과 등 농수산분야 피해지역 복구와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해 민·관·군이 적극 동참해 일손돕기를 적극 나서도록 하고 있다.

특히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시로 사소한 피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피해조사

를 철저히 해 중앙부처와 협의한 결과, 중앙안전대책본부로부터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 복구비가 총 719억원(국비 439억원·지방비 280억원)으로 확정됐다.

신안 흑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국고지원 70억원이 추가돼 지방비 부담도 크게 줄었다. 복구금액 중 농수산물 재난지원금이 총 513억원으로 확정돼 농어가에 긴급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링링' 피해로 인한 전국 국비 지원액의 50% 이상을 확보한 상태로, 농어가 피해를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광주시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 토론회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7일 오후 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광주시 청년정책 광주청년 참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광주시의회 제공

'ASF 사각' 전남 무허가 축사 19곳 등록·허가 없이 돼지 키워...전남도 "모두 수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전남지역 소규모 양돈 농가가 19곳으로 집계됐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돼지를 키운 도내 소규모 양돈 농가를 파악한 결과, 모두 19곳에서 돼지 176마리를 사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도가 9곳 107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대부분 농가당 10마리 안팎의 돼지를 키우고 있었다.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돼지 1마리만 사육해도 등록을 해야 하며, 축사면적이 50㎡가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

만 이들 소규모 양돈 농가 19곳은 아예 등록조차 하지 않고 돼지를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지역 ASF 확진 농장 가운데 1곳이 이들처럼 관리대상 농가가 아닌 무허가 소규모 양돈 농가였다. 관리대상 축산 농가가 아닌 만큼 정부·지자체 방역대상에서도 제외돼 지도·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도내 소규모 무허가 양돈농가 돼지들에 대한 예방접종은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전남도는 이들 농가소유 돼지를 모두 수매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전남도, 환경산업 육성 국고과제 발굴 '국비 확보' 산·학·연 전문가 중장기 전략회의

전남도환경산업진흥원은 7일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국비과제 발굴과 환경분야 중장기 전략과제기회 출범식(Kick-off) 회의를 열어 국비 확보 성공의지를 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환경산업진흥원장과 환경산업 R&D 각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가 참석해 국고 확보 사업 추진 과제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의 새 천 년 비전인 '청정 전남,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환경산업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수소에너지 농업활용 기반 시설 원예단지 조성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자원 재활용', 환경측정분석 스마트 관리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환경융복합', 환경부 신규 환경융합거점단지 전남 유치 위한 '환경인프라 구축',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중장기 환경산업 국고과제 기획의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영민 기자

'광주형 일자리' 합작법인 업무 개시

설립 이후 첫 회의...착공 등 향후 계획 논의

광주형일자리 첫 모델인 자동차공장 합작법인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가 법인 설립 이후 첫 회의를 열고 업무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7일 GGM 박광태 대표이사 와 박광식·고병일 이사, 선홍규·이중욱 감사, 광주시 지원단, 광주그린카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임원진은 연말 착공부터 오는 2021년 양산을 목표로 산적한 문제들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GGM 임원들은 앞서 지난 4일 첫 상견례를 가졌다.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법인 사무실이 마련됐지만, 법인설립 이전부터 논란을 빚은 박광태 대표이사 선임, '반 노동계' 현 대자동차 추천 이사, 노동이사제 문제가 정리되지 못하면서 정상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못했다. 광주시와 그린카진흥원에서 파견된 5명의 지원단이 사무실에 출근했지만, 이사진이 나오지 않아 업무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직원이 이사진, 감사, 지원단 등 10명에 불과해 제대로 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우선 인력채용을 한 뒤, 조직구성에 착수할 방침이다. /황애란 기자

'주 52시간제 공포' 현실화 되나

▶1면에서 계속

반면 근로시간이 줄어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월평균 33만원 줄었다. 더 큰 문제는 추가 고용을 하려는 중소기업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있다.

조사대상 500개 중소기업중 기업의 28.4%는 정부 지원이 있을 경우 추가 고용을 하겠다고 응답했다.

이중 5.6%만이 정부 지원과 무관하게 추가 고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 중소기업의 77.4%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상황에 경제단체들도 주 52시간근무제에 대한 보안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장윤성 중소기업정책 광주전남부장은 "내년 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며 "중소기업 현장 인식과 정부 조사결과 간 괴리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뿌리제조산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이라 사당도 현장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며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9개월의 계도기간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알바지킴이 발표회 참석한 정종제 부시장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7일 오후 시청 행복나눔실에서 열린 시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알바지킴이 활동발표회에 참석, 격려사를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투자

7억원, 2명

- 대상 - 급매물 · 경매물건
- 기간 - 2년 이내
- 수익 - 연 24% 이상 가능

법적보장. 010-3605-5000

매각 공고 (3차)

- 입찰내용**: 발파암 매각
- 매각물건의 표시**
가. 적치장위치: 전남 해남군 계곡면 일원 (보성·임성리 5공구 현장)
나. 매각예정수량: 152,062m³(자연상태)
- 입찰방법**: 일괄 매각 입찰
- 현장설명**: 생략문의 061-532-9212)
- 입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등록 마감일: 2019년 10월 10일(목)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0일(목) 15:00, 건설사업관리단 사무실
- 입찰참가자격**
가.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견적서를 시한 내에 제출한 자
나. 골재채취업, 골재선별 및 파쇄업 허가/등록, 비금속 광물 분쇄물 생산업을 득하여 업을 영위하는 자
다. 국제정수법 제66조(매수인의 제한) 및 동법 제72조(공매참가의 제한) 규정에 의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라. 기 암매각 관련 협약 위반업체 제외
마. 동 사업구간 낙찰금액 확인 및 동등 이상 제시금액 업체 입찰 참가 허용
바. 입찰일 현재 당 현장 내에서 운반중인 운반업체는 제외
사. 관내(해남군, 영암군, 강진군)에 아적장 및 처리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발파암 매각금액 등 경제성 검토결과로 낙찰자 선정
나. 경제성 검토결과 동일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함
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낙찰되거나, 낙찰자가 기한 내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시, 기한 이내에 인허가를 득하지 못한 경우, 계약조건 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후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기타 특약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불이행시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해야 함.
나. 본 입찰 참가자는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적서 제출시 같이 제출해야 하며, 입찰공고조건 및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 하시고,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반출 전 매 20,000m³ 마다 낙찰금액 선납 후 반출하여야 함.
라. 상차, 운반, 안전, 관련 인허가 비용은 수요처 부담으로 견적하여야 함.
* 단, 신호수 및 환경관리 제외(운반 중 발생하는 환경관리는 포함)
마. 운반관련 차량은 반드시 세운기 세척 후 출차하여야 한다.
바. 적지 후 반출 요구시 즉시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사. 암버력 처리시 불순물 처리비용을 포함한다.
아. 1일 발파암 1,000m³ 이상 반출하여야 함.
자. 상기 매각예정수량은 발주처 및 현장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발파암 반출에 관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성·임성리 제5공구 건설사업관리단 (☎ 070-4458-7567, 7568)
○ 한국철도시설공단 호남본부 담당자 (☎ 061-840-5136)

2019년 10월 8일
KR 한국철도시설공단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입·분양·모임

• 광고료 062) 720-1016, 1017
• 팩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i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경조화환 7만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농협 박배성 302-0316-640511

전국임야 삽니다

당일처리. 010-6834-7400